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한

제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내일 개강

『경전과 교양』을 주제로 11월 21일까지 10주간, 매주 월요일 YMCA 대강당에서

우리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주최하는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내일 제 6학기 개강예배를 드린다.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들에게 계속적인 말씀 공부와 신학적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적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며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고 지도력을 개발케 하는 등 역동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은 지난 1992년에 개원하였다. 매학기 10주의 성경공부와 특강들을 통해 현대교회의 현주소를 살피고 목회 방향을 새롭게 조명해 보았던 목회자신학 세미나는 그간 「설교와 목회」,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교회갱신과 목회」, 「급변하는 사회와 교회갱신」,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 「강해설교와 영적 갱신」 등의 주제로 말씀을 연구하며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경전과 교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제 1교시는 로마서 강해를 통해 말씀을 공부하면서 강해설교의 방법을 모색해 보며, 제 2교시는 서양의 고전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신학은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서야 다루는 학문이자 제학문의 근원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목회자들이 목회의 폭을 보다 넓히기 위해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해 온 고전들을 섭렵해보고자 기획된 것이다. 이미 전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등록하였으며 이번 학기의 색다른 주제 선정에 관심과 격려를 표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개강예배는 내일 오후 2시 강남 YMCA 4층의 대강당에서 드린다. 11월 21일까지 10주간 월요일마다 계속될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한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세미나의 진행을 위한 요소 요소마다에서의 봉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9월 19일(수석)과 10월 3일(개천절)은 휴강

제 6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1994년 9월 5일 ~ 11월 21일(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5시 20분)

주제 - 『경전과 교양』

일시	제 1 교시 14:00 - 15:30	제 2 교시 15:50 - 17:20
9/5	로마서강해 이 중 윤 목사 (서울교회)	신의 도성 - 어거스틴 - 한태동 박사(연세대)
9/12		판세 - 파스칼 - 이 환 박사(서울대)
9/26		실락원 - 밀튼 - 조신권 박사(연세대)
10/10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 - 칸트 - 손봉호 박사(서울대)
10/17		존재와 시간 - 하이데커 - 이규호 박사(전 교육부 장관)
10/24		죽음에 이르는 병 - 키에르케골 - 김형석 교수(연세대)
10/31		대 교수학 - 코메니우스 - 박성수 박사(서울대)
11/7		시간의 역사 - 스티븐 호킹 - 정근모 박사(전 과학기술처 장관)
11/14		프로테스탄트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맑스 웹버 - 전성우 박사(한양대)
11/21		역사의 연구 - 토인비 - 이원설 박사(전 한남대 총장)

비전 2000운동

- 행사 개요 -

VISION
2000

1994. 10. 2. - 11. 20.

비전 2000 행사본부(본부장:홍정호 장로, 지도:김재호 목사)에서는 오는 10월 2일(주일)부터 11월 20일(주일)까지 50일간 전개될 '94 비전 2000운동의 행사개요를 확정하였다.

▶ 주제 성구 및 찬송

-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디도서 1장 3절)
-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찬 260장)

▶ 실천강령

-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하는 성도
-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
-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위한 수고를 감당하는 성도

▶ 주요 행사 일정

- 10월 2일 - 비전 2000운동 선포식
- 10월 9일 - 전교인 주일 노방전도
- 10월 16일 - 전교구 가족 만남의 주일
- 10월 23일 - 전교인 주일 노방전도
- 10월 30일 - 전가족 만남의 주일
- 11월 6일 - 모든 친구 초청 주일
- 11월 13일 - 이웃 초청 주일
- 11월 20일 - 총동원 주일, 송전감사예배

▶ 이 기간 중의 인사말

- 성도끼리 - “나도 전도할 수 있다”
- 전도대상자에게 -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복/음/만/민/이/듣/도/록

창세기
강해

롯의 잘못된 선택

(창세기 13장 1 ~ 13절)

이 중 운 목사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결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서야 다시 벨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벨엘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을 통해 몇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 벨엘로 돌아온 아브라함

벨엘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1:9).

아브라함은 이 말씀의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비록 제 길로 갔었으나 애굽에서 실패한 후 벨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의 무릎을 꿇고 용서함을 얻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송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사하심을 얻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을 방해합니다. 죄의식으로 낙담하고 절망에 빠지게 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고 새 은혜를 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한 땅으로의 전진을 중단하고 하란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 일으킨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으나 또다시 넘어졌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교훈으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치 탕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천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대문을 열어 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2. 온유한 선택

우리는 날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단의 순간에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어야 했을 사람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좇아 온 이유는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았던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에 감화를 받아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고 아브라함을 따라 온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따를 수 있었을 터이니 감사함으로 엎드려야 할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 버리는 롯의 교만한 모습이 보입니다. 롯의 잘못된 악한 것을 선택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없는 선택을 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올 때에 많은 종과 가축도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목양지가 제한되어 있으니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고 불가피하게 둘은 영역을 정해 땅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이 때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고 하면서 결정권을 롯에게 양도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롯은 자기 눈에 좋은대로 벨엘 언덕에서 보이는 요단길을 택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롯의 부는 오히려 천척간에 분쟁을 초래했고 자멸의 씨가 되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드러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현실이라는 언덕에서 서서 선택해야 할 두 지역을 바라보며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에 초점을 맞춘 온유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소유함으로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3. 불신앙의 결과

아브라함의 경우 비록 그가 불신앙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의 자리에 다른 우상, 곧 물질의 우상을 올려놓고 맙니다. 롯은 요단 물을 바라볼 때에 그곳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

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욕심에 생기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롯은 소돔 근처에 장막을 치게 되는데 소돔은 악한 도시라고 했습니다(13절). 환경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아무리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주변의 일들이 죄로 꼭 차있다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롯이 죄의 도시를 향해 가는 것은 결국 롯의 행실을 점차 부패하게 만듭니다(벧후2:7 참조). 신앙인으로서 영향력은 상실하고 가족은 열락을 취하다가 비극을 맞이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다(사40:26, 28).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시다(요11:41, 42). 위엿 것을 찾는 사람은 사망함을 갖게 되고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으로 용기있는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을 교훈 삼아 우리 눈을 바른 곳으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매순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남은 날들을 바치자

모자란 것도 문제지만 남아들이 가는 것도 도리어 집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기에 여분을 선용하는 슬기는 지분의 활용 못지않게 필요하다. 남은 시간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더욱 보람있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디 여가선용뿐이라. 많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패가망신한 이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축복으로 받은 재물을 저주스럽게 탕진하는 이들은 여재를 선용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시간과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여생도 부스러기처럼 버려져서는 안된다.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던 이들은 이제부터 남은 날들은 사회와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바쳐야 할 것이다.

젊은 날엔 오관의 만족을 위해 살아 왔다면 남은 날들은 신령한 삶을 추구하면서 미래세계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자.

◆강의면에서 온 편지◆

서울교회 70인전도단을 통해 강의면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글은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70인전도단이 파송받아 나갔던
충북 청원군 강의면의 은성교회를 담임하시는
소정의 목사님으로부터 온
감사의 편지입니다.

서울교회 70인 전도단이 우리 강의면에 오셔서 복음을 뿌리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음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이중윤 목사님을 뵈었고 늘 존경해왔으나 서울교회의 70인전도단이 저희 마을에 파송되어 오신 것은 저희로서는 뜻밖의 선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70인 전도단원들이 다녀간 후 저희 강의면은 뒤집어지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침체된 농촌 교회가, 안된다던 농촌 전도가 전도단원들의 활동을 계기로 새 힘을 얻었고 도약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오셨던 전도단원들은 역수로 퍼붓는 빗줄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설새없이 축호전도를 하여 한 집을 두 세차례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강의면 15개 부락 중 먼 곳에 떨어져 있는 4개 부락을 제외하고는 이잡듯이 방문하여 전도하였습니다. 이 일을 지켜보던 강의면 여기 저기에 있는 교회들이 각성하였고 전도단의 활동 기간 중에는 평소 출석인원의 10배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을 밟았으며, 저희 교회에는 장년 15명, 어린이

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선한 일에 부하는 교회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회를 위하여, 이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70인 전도단을 위하여 저희도 계속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성교회를 대표하여
소정의 목사 드림.



◀ 은성교회를 기점으로 강의면 복음화를 위해 댄출리던 70인전도단

◆9월, 다락방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허리를 동이고 달려 나가자



권 상 석 목사
(교구위원회 지도)

말 그대로 무더운 여름을 보냈다. 언제쯤 시원한 바람이 불려나, 언제 가을이 오려나 하고 고대하였지만 지리한 여름은 도대체 그 기세를 꺾지 않고 우리를 지치게만 했었다.

그래도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고 다시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시원함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늘이 더 높아진 것 같고 구름이 얇아진듯한 구월의 문턱에서 시간, 때, 기회, 그리고 결실 등의 단어들을 떠올려 본다.

유래없었던 올 여름의 더위에 육신도 영혼도 지쳐 꼭 해야 할 일마저도 '더우니까', '지치니까'하며 미루던 일들도 이제는 더 이상 핑계치 못하게 되었다. 이제 신선한 바람과 더불어 우리 영육에도 새바람을 불러 일으켜 허리를 동이고 꺾대를 향한 달음질을 계속해 가야겠다. 마냥 여름일것만 같았던 더운 날씨가 슬며시 물러가듯 흐르는 시간도 우리를 위해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다면 이제 뛰어보자. 열심히,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달려보자. 다락방 식구들이 뛰고, 다락방장들이 뛰고, 교역자들이 뛰어야 한다. 교회가 제시한 방향을 교구 담당 교역자들이 안내를 하고 교구장들은 힘을 북돋

우며 용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는 순례의 길에서 뛰는 자는 앞설 것이요, 걷는 자는 뒤쳐질 것이고, 멈추어 서있는 자는 퇴보할 것이다.

한 교회의 울 안으로 불러 주셨으니 이 교회의 지체로서 다른 형제들을 세우는 일에 힘써 보자. 다락방 식구들끼리는 서로 다른 은사와 신앙적 배경을 가졌으나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한 목적으로 살아가니 서로 힘을 돋우워 주며 뛰자, 달려가자.



제 4차 학습, 세례식

1994년도 제 4차 학습·세례식이 14일(수) 수요일, II부 예배 시에 거행된다. 이를 위한 교육은 12일(월) 오후 7시에 2층에서, 문답은 13일(화) 오후 7시에 4층에서 갖는다.

사랑부 - 학습·세례식과 친교의 자리 “사랑의 큰 잔치”

9월 11일(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별관 사랑부실에서

사랑부는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지체부자유아, 정신지체아, 자폐아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특수 교회학교 부서다. 사랑부에서는 이번에 14명의 학생이 학습을, 16명이 세례를 받는다. 예배와 학습, 세례식 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친교하는 사랑의 큰 잔치를 벌이기로 했다. 이 잔치는 사랑부 학생들의 부모님 뿐 아니라 사랑부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누구나 오셔서 축하하고 위로할 수 있다.

사랑부는 학생 한 명마다 교사가 필요한 부서이다. 예배시간에는 물론 집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집으로 오가는 길을 돌보아 주어야 하고 교회에 와서도 계단을 오르 내리는 일이며 화장실에 출입하는 일들을 모두 돌봐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교사가 많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부는 주일 오후 2시부터 별관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힘 세고 사랑 많은 형님, 누나 선생님이 많이 와서 돌보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 윤봉준 장로님, 이복규 집사님)



↑ 지난 5월 5일 올림픽 보조경기장에서 가진 '한마음 축제'때 한자리에 모인 사랑부 가족들

공 고

청년부 정기총회

일시 / 1994년 9월 4일 오후 2시
장소 / 청년부실(본당 2층 예배실)
주요안건 / 제 2기 정·부회장 선출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제 6학기목회자세미나가 한국교회의 갱신에 기여하기를.
2.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3.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79회 총회를 위해
4. 방글라데시 다카에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어가기를.
5. 다시 시작하는 교회의 행사들이 알차게 결실하도록.

◆ 선교지 소식

방글라데시 다카에 세워질 장로교회와 신학교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에덴교회의 스브로토 바로이 목사로부터 우리교회에 감사의 인사와 함께 기도를 부탁하는 서신이 남아왔다. 금년 정초부터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바로이 목사는 현재 다카 교외에 수천평의 대지를 마련하고 장로교회와 신학교 설립을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다.

교회도들의 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바로이 목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과 장신 신대원에서 수학한 바 있으며 한국 체류 중에는 우리 교회 예배에 출석하며 청년부 회원들과 교제도 가진 바 있다.

결혼증명서 발급

- 부부의 이름, 생년월일, 결혼식 날짜와 함께 교회 사무국에 신청 -

우리 교회는 한글과 영문으로 된 결혼 증명서를 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짝 지워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잘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이 결혼 증명서는 품위있게 제작된 케이스와 함께 새가정에 주어진다.

그간 우리 교회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린 가정 중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신 가정은 사무국에 부부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혼식 날짜를 기록하여 신청하면 일주일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 목회자동정 ■

- 이종윤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79회 총회에 총회 총대로 참여한다. 이 총회는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소망교회당에서 「새롭게 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열린다.
-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총회가 9월 6일부터 3일간 「공평과 의」라는 주제로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다. 이종윤 목사는 이 기간동안 성경공부를 인도한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